

# 마법의 리모컨

장연아

오늘은 온종일 비가 내려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다.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리모컨의 뒤로 가기 버튼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마법의 리모컨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엄마가 말하길, “마법의 리모컨? 그걸로 뭘 하고 싶어?”

나는 리모컨을 들고 베란다의 시들시들한 나팔꽃을 향하자, 삐~, 나팔꽃이 활짝 피었다!

창밖의 쏟아지는 비를 향하자, 삐~, 빗방울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빙그레 웃는 태양을 불러냈다!

다 읽은 마지막 장의 만화책을 향하자, 책장들이 좌라락, 첫 페이지로 돌아갔다!

텅텅 비어 있는 과자 봉지로 향하자, 과자들이 짹 찼다!

엄마의 주름에 향하자, 삐~, 피부가 탱탱해졌다!

아빠의 머리카락을 향하자, 아빠의 머리카락이 풍성풍성해졌다!

외할머니의 굽은 허리를 향하자, 와, 허리가 쪽 펴지면서 “개운하

다!”라고 하셨다.

나는 흥분해서 말했다. “엄마, 엄마도 나의 마법의 리모컨을 써 볼래?”

엄마는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께서 항상 따르릉따르릉 소리를 내며 큰 자전거로 엄마를 데리고 다니셨다고 했다. 어느 날 엄마는 새로 산 풍선을 손에 들고 자전거 앞에 앉았다. 따스한 햇볕을 맞으며 외할아버지와 ‘풍당풍당’이라는 동요를 부르다 잠이 들었고 풍선은 하늘로 날아갔다. 엄마는 이 마법 리모컨을 누르고 그날로 돌아가면 풍선의 줄을 꼭 잡고 외할아버지와 동요 ‘풍당풍당’을 끝까지 부를 거라고 했다.

아, 맞다, 땀이 비질비질 나는 어느 여름날, 할아버지와 아빠가 트럭을 몰고 학교에 나를 데리러 오던 기억이 난다. 높은 트럭에서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봉어싸만코 하나를 건네주셨다. 조금 녹은 것 같아서 받지 않자 할아버지는 혼자 드셨다. 나는 리모컨을 누르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웃으며 할아버지가 주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할아버지께 “정말 맛있어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싶다.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말이다.

작년 설날 밤, 우리 가족은 사거리를 찾아 엄마의 고향 풍습에 따라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렸다. 외할아버지의 동그라미에는 꿀, 사탕, 자전거를, 할아버지의 동그라미에는 떡, 소주, 봉어싸만코를 그렸다. 올해 나는 마법의 리모컨을 그리고 싶다. 왜냐하면,

녹은 아이스크림은 눅눅한 모습으로  
하늘로 날아간 풍선은 손으로  
별이 된 당신들은 식탁으로 돌아와  
흰머리는 검정 머리로 변할 것이다.

당신은 나에게 사과 머리를 묶어 주고,  
운동화 끈을 매 주고  
짬뽕을 찌서 나에게 주고  
당신들은, 아직도 내 곁에 있을 것이다.